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신규 설립! 현장을 바꾸자!



쌍욕이 난무하는 강압적인 회사

청주 오창읍에 위치한 테스트테크는 반도체기판을 검사하는 회사다. 노동자들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밤낮없이 일했다. 그러나 관리자들의 쌍욕이 난무하고 물량이 감소하면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일했다. 작업 중 다쳐도 산재는커녕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 현장의 불만이 쌓일대로 쌓였다.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린 테스트테크 노동자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찾아왔다. 노동자의 힘으로 회사를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2월 9일(목) 테스트테크지회를 설립했다. 지회 설립 후 매일 아침 07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며 노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테스트테크지회 조합원들은 아직 어색하고 낯설지만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구호도 외치며 자신감을 얻어

가고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바꿔나가자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 사수!

언제나 그랬지만 금속노조는 신규지회가 설립되면 열성적으로 연대했다. 신규지회 설립 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했다. 강제 연차 사용, 욕설 등 언어폭력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테스트테크에서 민주노조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테스트테크지회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자.